

자연 현상 vs 사문 현상

〈Comment〉

- 1)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의 주어가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. 물론, 주어는 밑줄 친 부분에 없을 수 있다.
그런 경우에는 서술어의 생략된 주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. 실수만 하지 말자.
- 2)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밑줄 친 곳이 자연 현상인지 사문 현상인지에 아는 것에 대한 감을 익혀야 한다.

(1) 자연 현상과 사문 현상의 공통점

-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. (1409)
-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. (1611)

(2) 자연 현상의 특징

-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. (1411)
- 사문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. (1506)
-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. (1506)
- 사문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. (1509)
- 인과 법칙을 따른다. (1509)
- 사문 현상에 비해 예측이 용이하다. (1509)
- 불가치적이다. (1511)
- 동일 조건하에서 동일 현상이 발생한다. (1809)

(3) 사문 현상의 특징

-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. (1409)
- 개연성으로 설명된다. (1409)
- 특수성보다 보편성이 강조되지는 않는다. (1409)
-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. (1411)
- 자연 현상이 원인이 되어 사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 (모기 증가 → 방역 관리) (1411)
-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. (1411)
- 특수성을 지닌다. (1506)
-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. (1506)
- 가치 함축적이다. (1509)
-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. (1711)
-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. (1809)

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(기능론, 갈등론, 상징적 상호작용론)

〈Comment〉

- 1) **상호** (기, 상), 지배 (기, 갈)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관점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, 그러므로 단어가 아닌 문맥 위주로 제시문과 선지를 보아야 한다.
- 2) 비판에 관한 선지가 나오면 어느 관점이 어느 관점을 비판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.

(1) 거시적 관점

-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. (1409)
- 가족 제도를 사회 구조와 연관하여 본다. (1506)
-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강조한다. (1509)
-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. (1709)
-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한다. (1909)

1-1) 기능론

- 학교 교육이 사회적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. (1406)
- 사회의 부분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사회를 유지시킨다. (1406)
-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합의된 가치가 존재한다. (1406)
- 혼인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및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의례이다. (1409)
-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. (1409)
- 교육은 사회 자체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. (1409)
- 집단 생활에 필요한 사회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동질성을 강화하여 사회를 존속시킨다. (1409)
- 학교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및 고착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관이다. (1409)
- 학교는 그 사회가 공유하는 지배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기여한다. (1409)
- 가족이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한다. (1411)
- 핵가족은 산업 사회의 중요한 하부 체계이다. (1411)
- **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을 통한 가족 역할의 재구성을 강조한다. (1411)**
-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위해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이 필요하다. (1506)
- 가족 구성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. (1506)
- 성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하는 것은 사회적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(1509)
-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. (1509)
- 부모의 사회, 경제적 배경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학업 성취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. (1509)
- 교육을 전체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적 가치의 전파 수단으로 간주한다. (1509)
- 교육의 인재 선발 기능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. (1509)
- 학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다. (1511)
- 교육의 인재 선발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본다. (1511)

- 교육이 계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본다. (1511)
-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, 도덕적, 신체적 특성을 갖추도록 어린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. (1609)
- 교육을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(1609)
-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에 의한 것이다. (1609)
- 가족 문제의 원인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이다. (1611)
- **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. (1611)**
-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주목한다. (1706)
-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,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. (1706)
-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한다. (1706)
- 사회가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이룬다고 본다. (1709)
-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. (1711)
-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. (1809)
-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역할 수행 체계가 무너지고 구성원 간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면 세대 갈등이 발생한다. (1906)
-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. (1906)
- 교육을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체계의 내면화 과정으로 본다. (1906)
- 교육이 계층의 재생산을 억제한다고 본다. (1906)
- 교육과 위계적인 직업 구조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.
-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. (2009)
-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. (2011)

1-2) 갈등론

- 한 사회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. (1406)
- 사회 구조나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. (1406)
-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,상류층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. (1409)
- 다른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족 또한 구성원 간 권력 관계의 장임을 강조한다. (1411)
- 가족이 사회 변동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강조한다. (1411)
- 가족은 구성원 간의 권력 관계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강화할 뿐이다. (1506)
- 가족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. (1506)
- 불평등한 가족 관계가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를 통해 고착화된다. (1506)
-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의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. (1509)
- 사회화가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본다. (1509)
-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,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. (1509)
- 학교 교육 내용에 계층 간 유불리가 존재함을 강조한다. (1509)
- 교육을 개인의 사회 이동 수단보다는 계층적 지위의 고착화 수단으로 본다. (1509)
- 사회의 변동을 중시한다. (1511)
-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. (1511)
-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. (1606)
-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고착화된 불평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. (1611)
- 교육은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. (1706)
-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고 본다. (1911)
-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

(2) 상징적 상호 작용론 - 미시적 관점

- 혼인은 부부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구성해 가는 사회 과정의 출발점이다. (1409)
- 인간의 능동적 사고와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. (1409)
-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와 칭찬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. (1409)
-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의 생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을 강조한다. (1411)
-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의미와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한다. (1506)
-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가정한다. (1506)
- 상황 정의를 매개로 한 인간 관계에 주목한다. (1506)
-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부여를 중시한다. (1509)
-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다. (1511)
- 사회 규범은 대다수 구성원이 특정 행위에 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된다. (1806)
- 사회 구성원들이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 규범은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다. (1806)
-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. (1906)
-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 세계를 중시한다. (2006)
-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.

(3) 기능론, 갈등론, 상징적 상호 작용론 모두의 공통점

-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. (2006)

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

〈Comment〉

- 1) 최근에는 이 부분이 양적 연구 결과 분석으로 나오므로, 개념을 묻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.
- 2) 양적 연구 결과 분석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묻는 선지는 항상 있으므로 양적 연구 방법 선지를 위주로 보자

(1) 양적 연구 방법

- 사회 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거친다. (1406)
- 행위 주체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가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. (1406)
- 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. (1406)
-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. (1406)
-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성을 분석한다. (1409)
- 주로 연역적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. (1409)
- 연구 대상자의 동기나 의도를 객관화할 수 있다고 본다. (1409)
-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. (1411)
-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. (1411)
-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. (1411)
- 독립 변수, 종속 변수, 모집단, 표본 집단의 표현이 주로 등장함 (1506)
 - cf. 실험-통제 집단은 실험법에만 해당
-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가 용이하다. (1509)
- 연구 대상의 주관적 가치를 측정하여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. (1606)
- 연구 주제 설정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. (1611)
- 가설 설정에서 가설 검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연역적 과정이고, 자료 수집에서 결론 도출로 이어지는 과정은 귀납적 과정이다. (1706)
-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을 수 있다. (1711)
- 양적 연구 과정 : 주제 설정 → 선행 연구 검토 → 가설 설정 → 연구 설계 → 자료 수집 → 자료 분석
→ 가설 검증 → 결론 도출 → 일반화
- 양적 연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치 개입이 필요한 단계 : 주제 설정, 가설 설정, 연구 설계, 일반화

(2) 질적 연구 방법

-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. (1406)
-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반하여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. (1406)
-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가 인식 주체에 의해 다르게 규정된다. (1406)
- 직관적 통찰을 통해 주로 인간 행위의 이면보다 행위 자체를 분석하고자 한다. (1406)
-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. (1409)
-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양적 연구에 비해 낮다. (1409)
-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. (1411)
-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. (1411)
-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파악한다. (1611)
-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방법들을 사용한다. (1611)

자료 수집 방법

	질문지법	실험법	면접법	참여 관찰법	문헌 연구법
1차 vs 2차	1차 자료를 얻는 데 사용된다.				2차 자료
양적 vs 질적	주로 양적 자료		주로 질적 자료		둘 다
실제성 높은 순서	3	4	2	1	
자료 수집 통제 순서	2	1	3	4	

〈1509〉

-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-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하다.
-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비해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.
-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.
-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조사 대상자의 동의 확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. 이는 연구 윤리의 문제이다.
-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유리하다.

〈1511〉

-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.
- 질문지법은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에 사용된다.
- 실험법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다.

〈1606〉

- 참여 관찰법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통제가 어렵다.
- 문헌 연구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적게 받는다.

〈1609〉

- 실험법은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.
- 문헌 연구법은 기존 연구의 경향성 파악에 용이하다.
-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.

〈1711〉

-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에 비해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.

〈1806〉

-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.
-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 대상과 연구자 간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.
-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해석해야 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
〈1811〉

-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한다.

〈1906〉

-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.
- 면접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.
-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.

〈1911〉

-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.

〈2009〉

-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계량화가 용이하다.
-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.
- 참여 관찰법은 자료의 실제성이 가장 높다.
-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에 불리하다.
-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.
- 참여 관찰법은 면접법에 비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.
-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일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.

〈2011〉

-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.
-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다.

***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다. (1206 - 정답률 18%)**

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

1.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

(1) 객관적 태도

- 사회 문화 현상에 관련한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. (1406)
-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현상이 가진 사실에만 근거하여 파악해야 한다. (1409)
- 연구자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가치와 편견을 배제하려는 태도이다. (1409)
-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(1409)
-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태도이다. (1411)
-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. (1711)

(2) 상대주의적 태도

-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시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. (1406)
- 상대방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(1409)
- 연구자는 사회 문화 현상 연구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. (1411)
-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. (1411)

(3) 개방적 태도

-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. (1406)
- 사회 문화 현상 연구에서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. (1409)
- 연구자가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정하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보고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. (1411)
-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. (1411)
-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. (1711)

(4) 성찰적 태도

- 연구 절차나 방법,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구자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. (1406)
- 연구자가 연구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. (1409)
-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한다. (1411)
- 사회 문화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 (1711)

2.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

- 연구 대상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. (1506)
- 연구 대상에게 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. (1506)
- 자료를 분석할 때 연구자가 가치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는다. (1506)
-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. (1506)
-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. (1606)
-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. (1606)
- 연구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. (1606)
- 연구 결과 발표 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. (1606)
- 자료 분석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이 이루어졌다. (1606)
-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았다. (1609)
-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조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다. (1609)
- 연구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. (1611)
-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. (1611)
-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. (1611)
-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하였다. (1611)
-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. (1706)
- 다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. (1706)
- 사생활 관련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. (1706)
-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성별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았다. (1706)
-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 수집을 하였다. (1806)
- 자료 분석 단계에서 고의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. (1806)
- 결과 발표 단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석 결과의 일부를 은폐하여 발표하였다. (1806)
-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하였다. (1806)
-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. (1811)
- 연구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여 분석하였다. (1811)
- 연구 자료를 왜곡하여 분석하였다. (1811)
-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. (1811)
- 연구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다. (1811)
-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. (2106)
-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. (2106)
-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켰다. (2106)
- 연구 결과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았다. (2106)
-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. (2106)